

제조업이 견인하여 2개월 연속 개선

~ 향후의 경기는 백신 접종 보급이 호재인 한편, 신규감염자수 증가는 우려요소 ~

(조사대상 2만 4,285사, 유효회답 1만 992사, 회답율 45.3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1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.6포인트 증가한 40.7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. 국내경기는 신규감염자수의 증가가 계속되었으나 제조업이 견인하여 회복경향이 계속되었다. 향후는 감염확대 방지와 경제활성화를 주시하며 회복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개선되었다. 해외경제 회복으로 반도체 관련 및 자동차 관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경향인 가운데 『제조』를 중심으로 개선되었다. 한편 사업단가 DI는 62.2로 14개월 연속으로 상승하여 목재 및 금속, 연료 등의 재료 가격 상승이 각 업계에 우려요소로 나타났다.
- 『토호쿠』 『키타칸토』 『토카이』 등 전 10개 지역이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.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영향이 지역에서 같았다. 수출증가의 호영향을 받은 업계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형태로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40대를 회복하였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 「중소기업」 「소규모기업」이 2개월 연속 모두 개선되었다.

< 2021년 7월의 동향 : 회복경향 >

2021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.6포인트 증가한 40.7로,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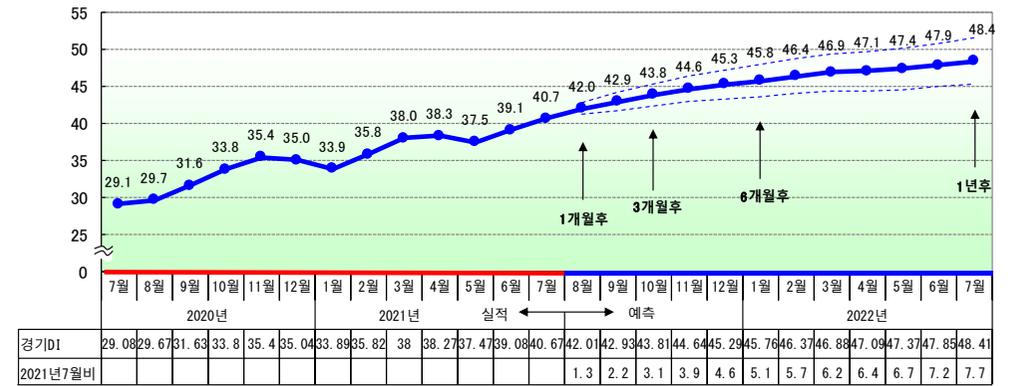
7월의 국내경기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는 가운데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영향이 지역별로 갈리는 한편, 백신 접종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를 향해가는 추이가 나타났다. 해외경제의 회복경향으로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계속 급증하여 제조업이 경제 전체를 견인하였다. 4일간의 연휴 등으로 인하여 소매업 및 개인서비스 등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개인소비 DI도 상향하였다. 한편 신규감염자수는 증가경향이 계속되었다. 또한 목재 및 금속 등 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사업가격 상승이 가속되고 있어 어려운 수익환경이 계속되었다.

국내경기는 신규감염자수의 증가가 계속되었으나 제조업이 견인하여 회복경향이 계속되었다.

< 향후의 전망 : 회복경향이 계속돼 >

향후의 국내경기는 백신 접종 보급에 따라 사람의 이동이 서서히 활성화되어 경제활동이 완만히 정상화를 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. 또한 5G의 본격적인 보급이나 미국 및 중국 등 해외경제의 회복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. 게다가 자택 내 소비 확대로 인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재택근무 등 통신 인프라의 정비, 기후변화를 포함한 SDGs에 대응한 투융자 등도 기대된다.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종 동향 외에 원재료 등 사업가격의 상승,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의 장기화, 가계 및 기업의 성장기대 저하 등은 우려요소이다. 또한 도쿄올림픽의 영향 및 업종·지역에 대한 경제의 양극화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.

향후는 감염 확대 방지와 경제활성화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회복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


※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, 점성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며, 예측치±2표준편차로 산출